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성경: 예레미아 29장
10-14절

Tag:

1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렘29:10-14)

이 본문 말씀은 2018년 4월15일 주일설교 본문말씀이다.

1년이 채 안되어 다시 이 말씀으로 설교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주간 매우 뜻깊은 일들이 있었다. 3.1절이 있었고,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되었으며,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대표로 선출하였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현재 대한민국과 같은 질풍노도의 시대를 겪는 나라가 있을까?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게다가 남한에는 이념갈등이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각각이다. 그래서 해석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3.1절을 맞아 임시정부 이야기가 많다. 분명히 임시정부의 영웅은 이승만 대통령인데, 김구만 TV에서 들쭉인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비난할 만한 것들이 없다. 그러나 그가 철저한 반공론자였고, 공산주의에 대해 가장 훌륭하게 대적하였기 때문에 김일성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원수같은 인물이었다.

임시정부 시절에도 독립운동 방법에 대한 시비가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와 신문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산주의자들(주석 명칭 사용 주장), 무모한 무력투쟁 독립운동가들은(국무총리, 집정관 총재) 게릴라전이나 암살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마찰이 잦았고, 그로 인해서 탄핵까지 당한다. 그래서 현 정부는 철저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묻어 버리고 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나라는 공산주의 운동이나, 무력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하지 않았다. 미국에 의해서 독립을 얻었고, 미국의 민족자결주의에 의해서 정권을 만들 수 있었다. 이것이 팩트이다.

현재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국내 경제는 포퓰리즘의 저주에 걸려서 점점 더 얼어붙고 있는데,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한다. 현 정부는 세계적인 빈국 북한을 도와주려고 안달이 나있다. 주요 수출국인 이웃 나라인 중국은 망해가고 있고, 주요 수입국 일본의 자존심은 억지로 굽어대고 있다. 미국은 아주 대놓고 방위비 분담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으며, 남북경협이 꼬투리만 잡히면 경제적 제재까지 감수해야 할 판이다.

세계도 좌파 우파로 나뉘어 분위기가 난장판이다. 그나마 이제는 중동의 테러범들이 잠잠하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는 가짜뉴스가 그 몫을 톡톡히 감당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적인 주류 언론이 주장하는 내용이 가짜인 경우가 많아졌다. 좌파 가짜뉴

스, 우파 가짜뉴스 모두 심각하다. 두 영역 모두 해괴한 통계나 자료를 드리밀면서 자신들의 억지 주장에 이용해 먹는다. 대중들은 공부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일단 중독성이 강한 멘트를 만들어서 주류 언론에서 터뜨리기부터 한다. 아니면 말고 식 뉴스, 적반하장 뉴스, 쥐꼬리만 한 정정뉴스가 판을 친다. 결국 대중은 뉴스도 골라먹는 시대가 되었다.

한국교회는 조금 더 심각하다. 총회장이나 노회장을 양산하는 지상 명령이라도 받은 것 같다. 이념전쟁으로 교회 기둥이 썩어가고 있는데도 뜨거워져가는 꿈 술 속에 개구리 같다. 끝까지 견디는 시험이라도 하는 건가? 경건의 모양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데 경건의 능력은 역시 꿈 술 속의 개구리마냥 눈을 감고 있다.

일단 교계 지도자들 가운데 정치와 이념에 문외한인 자들이 너무 많고, 가짜 뉴스에 속아서 진실을 파해치려는 목사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북한의 동포들이 자유를 빼앗기고 압제를 견뎌온 지 어언 70여년이 흘렀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북한 정권은 핵폭탄에 목숨을 걸었는데, 이제는 핵폭탄 때문에 나라가 올 스톱이다. 그동안 주체사상에 중독되었던 김정은이 이번 하노이 회담 결렬 덕분에 인사불성이다. 제발 이제 정신 차리도록 기도해야 한다.

김정은이 믿고 있는 신념은 단순 강패논리다. 강패논리로 정상회담에 임했다. 본심은 미국과 핵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다. 핵폭탄을 만들어 놓고 말로만 위협하는 전략이다. 너희들이 핵폭탄100개 우리에게 쏘고 우리는 하나만 싸도 된다. LA에 한방만 먹이면 된다는 식이다. 우리는 죽어도 좋은데, 너희는 LA포기할 수 있느냐는 식이다. 강패가 칼 들고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찌르는 시늉 하지 않을테니 돈 내놓으라는 것과 같다. 그러니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제일강한 나

라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니 아무도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식이다. 이게 말인가? 강패논리일 뿐이다. 이번 회담 결렬에서 김정은은 분명히 자신의 한계를 깨닫기 바란다. 그동안 저질러온 모든 죄를 깨우쳐야 한다.

그 일가의 지은 죄가 하도 커서 그가 사죄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지 의문일 정도다. 용서할 수 없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다. 다만 그가 목숨을 구걸하고 싶다면 나는 이렇게 조언하고 싶다.

평양에 미국연락사무소 차리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개설하고, 그 다음에 미국대사관 열고, 다음에 정치범 석방하고, 다음에 미북상호방위조약을 맺어라. 그래야 북한에 살 길이 열린다. 어차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거기에 북한을 끼워 넣으면 된다. 그러면 핵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미국과 세계는 핵위협에서 벗어난다. 마지막으로 압록강 두만강에 미군기지 배치하면 안보는 안심이 된다.

1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기억해야 한다. 조선은 이미 100년 전에 망한 나라였다. 망해야만 하는 나라였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 선언에 힘입어 3.1운동이라도 일어났다. 이미 망한 나라였지만, 실낱같은 이념 하나를 힘입어 민족이 만세운동을 벌인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망해도 다시 일어나는 나라다. 이런 거사를 처음으로 계획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다. (파리 강화회의에 이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거사를 준비토록 계획한 것. 송진우 김성수.)그때가 1918년 12월이었다. 비록 이승만이 계획한 거사는 수포로 돌아갔으나 1919년2월1일 무오 독립선언서에는 이승만도 참여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여기 저기서 임시정부가 설립되었고, 대부분은 이승만을 수장으로 내세웠으나 9월11일 이후에는 상해임시정부가 유일한 임시정부가 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이미 그때의 대한민국은 이념논쟁으로 치열하였고 세

계에서 반공정신이 가장 투철한 사람은 이승만이였다. 왜냐면 세계 각 나라를 다니면서 나라 건국을 위해서 연구했기 때문이다.

1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국을 선택하셨고, 한국으로 하여금 온갖 갈등 속에 세계 평화를 위한 백신들을 배양하도록 하셨다. 지금 한국에는 이슬람 백신, 율법주의 백신, 사대주의 백신, 우파 백신, 좌파 백신, 공산주의 백신, 사회주의 백신, 동성애 백신, 시장경제 백신, 이단 백신 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격고 있는 이 이념의 홍역을 단순한 재앙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백신들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치고 박고 싸워야 하는가? 전쟁을 해야 하는가? 전쟁은 전쟁인데 영적 전쟁이다. 이런 영적전쟁은 어떻게 할 것인가?

12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모든 이념의 기준은 성경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책이다. 그리고 오직 성령받은 자만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으며,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해야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다.

13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

라

14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렘29:10-14)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